

# CONTENTS

## 목차

## the ... 담다

04

### 에세이

선풍기 뒤에 있는 것들

06

### 포커스

우리는 여름에,

09

### 인터뷰

피서지, 멀리 않아도 좋다

## the ... 보다

14

### 공연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는 오셀로

16

### 전시

어떤 날의 기억, 양정욱 展

18

### 미디어

누군가의 미소를 담는 일

20

### 축제

아주 천천히 자라는 마을의 축제

22

### 문화사업

찾아가는 공연 '스낵버스킹'

## the ... 가다

26

### 컬처트래블

볼 수 없는 것을 봤다고 믿어보기  
당성을 걷다

30

### 마을기록

산그늘이 품은 마을  
천연기념물이 된 성수를 찾다

34

### 건축기행

화성 우정읍 매향리  
매향교회

## the ... 찾다

38

### 공간 & 공감

만 명의 스승을 만나는 세상  
만세작은도서관

40

### 문화살롱

자매애로 뭉치고 음악으로 힐링하는  
봉담여성합창단

42

### 공공미술

바다에 앉아 바다를 마주하다  
제부도 경관벤치

## the ... 하다

46

### 문화소식

재단 주요 행사 및 사업소식

50

###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동탄아트스페이스 큐레이터  
유도경·전하나

53

### 문화캘린더

7·8월 문화행사 캘린더

## 화분 VOL. 34

[華盆] 문화를 담는 빛나는 그릇  
2018 JULY · AUGUST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권영후 편집국장 윤태원 편집팀장 유영임  
기획·편집 신혜진, (주)더페이퍼 디자인·인쇄 (주)더페이퍼 홈페이지 www.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전화 031-8015-8112 팩스 031-8015-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에세이

선풍기 뒤에 있는 것들

포커스

우리는 여름에,

인터뷰

피서지, 멀지 않아도 좋다

# the 담다

삶이 담긴  
예술을 만나다



## 선풍기 뒤에 있는 것들

글 전영관 시인

분해된 선풍기를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있다. 이용할 시절은 아직 아닌데 내 안에 스미어있는 무언가가 선풍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 나 모르는 사이에 여름이 되면 힘차게 돌릴 다짐까지 하고 헛돌헛돌 준비운동도 했겠지. 무더위에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했겠지. 선풍기 앞에 놓고 이러저러 짐작하다가 내 아버지도 그러셨으려니 해보니 가슴 한편으로 전류가 흐르며 화르르, 먼 기억 속으로 날아간다. 철이 바뀌면 가장의 입장에선 온갖 상념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더구나 냉장고도 없는 살림이었으니 불별 아래의 노동을 견뎌야 했던 아버지에게 선풍기는 요즘과 다르게 각별했을 것이다.

“  
느린 노래를 들으면  
옛일이 생각난다.

선풍기 앞에 앉으신  
아버지의 런닝구가 펄럭이던  
모습이 펼쳐지겠지.  
”



휘감긴 코일에서 아버지의 근육을 느낀다. 요즘처럼 체육관에서 부피 먼저 키운 게 아니라 나날의 반복작업에서 익히고 또 쌓인 생활 근육이다. 겉보기에 세밀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근면, 성실, 책임감 같은 전류가 흐르는 순간 가족부양이라는 방향으로 힘차게 회전했을 것이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는 코일처럼 복잡, 다난한 생계를 아버지는 어찌 견디셨을까. 한 올이라도 끊치면 고장 나는 위태로움을 무엇으로 지탱하셨을까. 얼뜨기 가장인 나는 아버지의 자리가 한없이 아득하고 겁까지 나는 자리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아버지의 비밀이라도 들추듯 먼지를 걸레로 닦으려니 자꾸 엉기기만 한다. 아내 몰래 화장용 붓으로 털어본다. 역시나 오래된 것들은 섬세하게 발굴해야 하는가 보다.

사실, 우리집 선풍기는 재봉틀 다음으로 요즘도 영업하는지 모를 전당포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다.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그 무더운 빈자리에서 서늘함을 느끼셨을 것 같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파르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 앞에 앉아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셨을 것이다. 전당포에서 푼돈이나마 받아와 자식들 학비를 메운 어머니는 또 얼마나 미안하셨을까 싶다. 내가 스무 살 때인 1980년 무렵에 냉장고를 처음 샀으니 얼음물조차 없던 시절이다. 지금 되짚어보니 참 지리지도 없었다.

오래된 선풍기를 분해해서 청소하다가 발코니 창고를 열어보니 조금은 신형인 듯한 하나가 더 있다. 작년엔 선풍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삼복더위를 지나겠느냐는 청송을 듬뿍 받았을 텐데 좁고 어두운 창고에서 여태 말없이 때를 기다렸겠다. 멀쩡하던 자전거가 하이킹이라도 가려면

전날 체인이 끊어지는 것처럼, 나는 사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편이다. 사실 '정령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사물과 함께한 사람의 추억의 힘이 아니겠나 싶다. 그렇다면 우리집 선풍기에는 어떤 정령이 깃들어 있나 궁금해진다. 아마득한 옛날에 쓰던 것들은 이미 버렸고 지금 내 앞의 것은 언제 장만했는지도 가물가물하다. 우리집이라는 공간에 스민 식구들의 수련거림과 탄식과 애뜻함을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읽고, 경청했을 것이다. '이런 집이구나, 다른 냉방기가 없으니 고장 나지 말아야겠다'면서 다짐했을 테고, '생계가 빠듯한 형편이니 더위라도 덜어줘야겠다' 하면서 앞에 앉은 식구들 면면을 보고 친척이라도 되는 양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신기하게, 빠른 것보다는 느린 노래를 들으면 옛일이 생각난다. 울여름엔 선풍기 틀어 놓고 이 까닭을 시험해 보련다. 초점이 흐려졌다가 희미하게 떠오르겠지. 선풍기 앞에 앉으신 아버지의 런닝구가 펄럭이던 모습이 펼쳐지겠지. 옆에 앉아 팔랑거리는 월남치마를 여미던 어머니의 아원 팔뚝도 정지 화면처럼 내게 다가오겠지. 외아들도 바람 씩라고 슬며시 비켜주시던 아버지의 성긴 머리칼도 현실처럼 기억하겠지. 두레상에 식구들 모여앉아 칼국수를 후루룩거리던 저녁마다 국수 빨리 식으라고 왕왕 거리던 선풍기의 근육질 바람이 목덜미에 닿는 느낌으로 재현되겠지. 선풍기 앞에 '아...'하면 먼 곳의 무언가를 되찾아오는 양 메아리처럼 울린다. 선풍기는 배후의 공기를 앞으로 밀어내는 원리여서 작동시키는 순간 추억들이 밀려온다. 서늘하고 애뜻한 무엇과 그리운 누구들이 나를 휘감는다.





## 우리는 여름에,

글 신혜진(기획홍보팀)

옷장에 걸려있는 어두운색의 긴 소매 옷들을 치워야지 생각하고, 어딘가에 널 어두웠던 선풍기를 꺼낸다. 지난해 잘 입었던 짧은 팔의 티셔츠의 위치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여름엔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한다.

### 사실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을지도

‘휴가 어디로 갈지 정했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 속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없다. 사람들은 여름엔 당연히 어디론가 떠날 것을 짐작하고, 서로에게 어디로 떠날지를 묻는다. 여름이니까 바다는 한번 가야지, 수영장은 한번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멀리 떠났다가 지쳐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물론 그게 여름휴가의 매력이지만, 어쩌면 이 여름에 굳이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는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휴가를 권해본다. 편한 슬리퍼 차림으로 우리 동네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기, 도서관에서 책표지 구경하기, 방학한 아이들은 휴가인 아빠에게 말기고 혼자 카페 가기, 한적한 공원 찾기 등등.

###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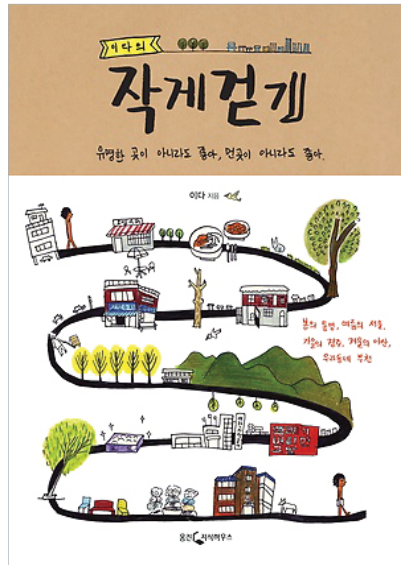
사람들은 독서의 계절로 가을을 떠올리지만 사실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이 가장 많은 달은 7월과 8월이다. 이번 휴가(방학)에 그동안 ‘뭣’ 읽은 책을 읽으리라 마음먹은 사람이 당신뿐만은 아니라는 얘기일 것이다. 어쩌면 어딘가로 떠날 예정인 당신은 가방을 챙기며 얇은 옷가지와 모자를 넣고 ‘읽을지도 모를’ 책도 한 권 넣어 볼 것이다. 해변에 누워 읽어도 좋고, 수영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도 좋고, 선풍기 앞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읽어도 좋을 책들, 그런 책들을.

###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의 표지에는 오징어 한 마리, 맥주 한 병, 커피 한 잔과 함께 속옷 차림의 한 남자가 널브러져 있다. ‘야매 득도 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라는 누구나 드는 생각 앞에서 한 번쯤은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다는 작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4수 끝에 미대에 입학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3년의 고민 끝에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나이 40살에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동네 형이 건네는 위로와 같은 책이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 삶이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은 유머러스하지만 공감 가는 멘트와 일러스트를 통해 굳이 치열하게 남이 맞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삶이 충분히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해준다.

### 이다의 작게 걷기



책의 작가인 일러스트레이터 이다가 그림일기처럼 담백하게 기록한 여행기. 거창하게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작가의 주요 생활공간인 부천을 중심으로 서울, 경주, 통영, 아산 등 누구나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그녀의 특별한 여행 장소가 된다. 책 속 작가가 여행하는 방식, 여행을 풀어내는 방식은 매력적이다. 작가는 ‘작게 걷기’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작게 걷기란 주변을 가볍게 걸으면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주변 걷기를 통해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지나쳤던 소소한 것들을 발견하며 재미를 느끼고,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작게 걷기는 유명한 여행지, 관광지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여기 이 조각이 있었나’, ‘이 나무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관점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늘 걷던 출퇴근길, 동네길 어디서든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주위를 살피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더 많은 것들이 당신의 삶을 채워줄 것이다.



## 시 읽는 엄마



엄마이자 시인인 저자 신현림이 38편의 시와 함께 써 내려간 이야기.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해내고 있는데, 왜 엄마라는 경력은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 이 광고 멘트처럼 엄마들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늘 열심히 하면서도 자녀에게 미안해한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여, 그대의 삶이 바로 시다.’라고 얘기하며,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전한다. 저자의 시 외에도 세계적인 고전 명시, 현대시,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들의 작품들까지 다양한 작품을 한 권에 엮어 냈다.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할 만큼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아이들이 잠든 소중한 휴식시간에 마음 따뜻한 여행을 떠나게 해줄 책이다.

## 그래도 괜찮은 하루



귀가 큰 토끼 베니. 오래전 싸이월드의 스킨 속에서 보았던 토끼 베니는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소녀의 귀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준다. 청각을 잃고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작가는 자신 대신 소리를 들어줄 귀가 큰 토끼 베니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는 자신이 만들어낸 토끼 ‘베니’와 함께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소녀에 대한 희망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는 들리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사람들이 그림을 알아주어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던 어느 날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점점 시야가 좁아져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잃지 않는 그녀는 눈이 보이는 그날까지 꼭 해야 하는 ‘버킷리스트’를 적는다. 엄마에게 미역국 끓여드리기, 소개팅 해보기, 헤어진 친구 찾기, 운전면허증 따기, 가족여행 가기 같은 소박한 일상들을 말이다. 쉽게 읽히는 텍스트 속에서 가볍지만은 않은 소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 피서지, 멀지 않아도 좋다

조금의 움직임에도 땀이 송골 땀히는 무더운 여름날, 당장이라도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지만 시간도, 체력도 마땅치 않다. 그러한 당신을 위해 가까운 카페로 떠나본다. 흘러나오는 음악 속 한 잔의 음료와 한 권의 책이 지친 맘을 달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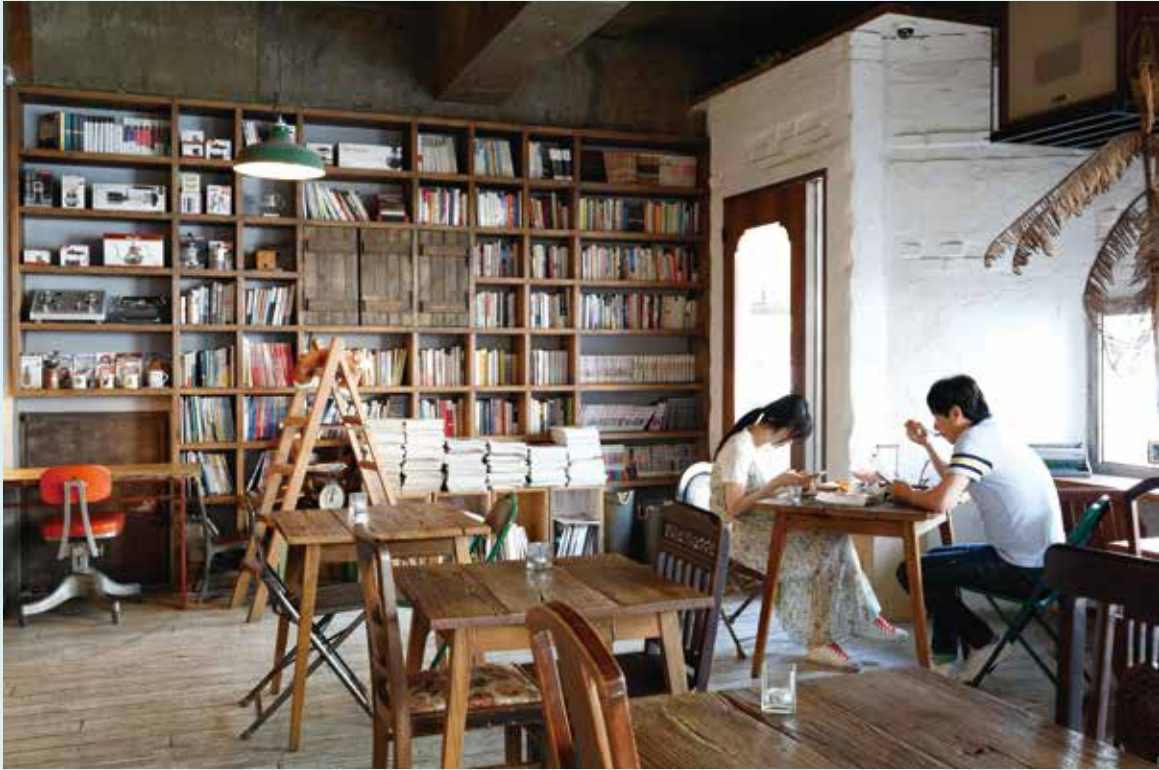
글 천한얼 · 사진 편집부



### 책에 푹 빠져 여름을 보내다 날날박스 북카페

병점역 인근 작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가면 노란 간판의 ‘날날박스’를 만날 수 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이곳은 아는 사람들만 오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있는 날날박스는 커피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출판된 책을 전시·판매하고 틈틈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활동 공간으로도 운영된다. 지역의 문화공간이 되고 싶다는 카페 주인 이형희 씨는 누구나 언제든지 오래 머물다 가기를 추천한다. “여기 오셔서 두세 시간씩 책을 읽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분을 대환영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편하게 책과 커피를 음미하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록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더운 여름이 싫다는 이형희 씨는 에어컨 바람이 부는 날날박스에서 책을 읽으며 더위를 피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 그를 따라 책 속에 펼쳐진 다양한 지역으로 미처 떠나지 못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시간제한이 없으니 마음껏 푹 빠져보자.

**날날박스의 여름밤 추천 메뉴** 원두향이 짙은 아메리카노(3,0)와 직접 제조한 더치커피(3,5)  
📍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04-7, 2F ☎ 031-224-8191 🕒 매일 10:00~20:00 일요일 휴무



## 감성 속 살아있는 커피를 마시다 지음 로스터리카페

동탄 센트럴파크 옆 카페거리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지음’은 오래된 서재 같은 따뜻한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다. 어딜 봐도 멋스러운 내부는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어도 빈티지 감성이 흘러넘친다. 책으로 가득 찬 서재와 만화책으로 둘러싸인 다락방, 곳곳에 자리 잡은 앤틱한 소품들은 이곳을 찾은 이들의 마음을 홀리기에 충분하다. 지음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형 씨는 “저는 커피를 팔지만 추억도 함께 판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 책을 읽든 작업을 하든 자유롭게 편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커피, 음악, 책, 사람을 만나 쉬다 가기를 권했다. 이곳의 분위기는 ‘내가 싫은 건 손님도 싫을 것’이라는 주인장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매번 4가지 원두를 선블랜딩하여 커피향을 내고, 매일 심야 라디오를 들으며 골라둔 잔잔한 팝 음악으로 감성을 더한다. 어느 여유로운 여름밤, 빈티지한 원목 테이블에 앉아 잔잔한 음악과 함께 코로 스며드는 지음만의 커피향에 취해보자. 따뜻한 불빛과 감각적인 소품이 당신의 시간을 꾸며줄 것이다.

**지음의 여름밤 추천 메뉴** 선블랜딩된 아메리카노(5.0)와 상큼한 레몬 아메리카노(6.0)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3길 10-14 ☎ 031-8003-5210 🕒 매일 11:00~24:00 연중무휴



## 유럽의 작은 정원에 들어서다 베르사유 플라워카페

푸른 자연은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 몸의 긴장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유럽에서나 만날 것 같은 실내분수가 인상적인 ‘베르사유’에는 싱그러운 녹색 식물들이 가득하다. 높은 천장 아래 통유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식물들은 존재 자체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베르사유를 운영 중인 임지혜 씨는 “이곳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분위기를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유럽의 길거리처럼 어디에서나 커피를 드셔도 돼요. 사실 분수 옆에도 앉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앉지 않으시더라고요.”라며 즐거운 웃음을 건넸다.

베르사유에는 정원으로 꾸민 공간과 상반되어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반지하 공간도 있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짜ايا’ 베르사유 실내분수에서 끊임없이 물이 뿜어 오른다. 물소리는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마음을 풀어주는 물소리를 배경으로 한적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추천한다. 늦은 저녁이 되면 은은한 조명이 비추니 밤이 선사하는 낭만에 두 번 반해도 좋다.

**베르사유의 여름밤 추천 메뉴** 더치커피를 얼린 큐브라떼(7.0)와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시나몬 크렘라떼(7.0)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4길 6-29 ☎ 031-378-1158  
🕒 월-토 11:00~22:00, 일 11:00~21:00 연중무휴





# the 보다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보다

## 공연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는 오셀로

## 전시

어떤 날의 기억, 양정욱 展

## 미디어

누군가의 미소를 담는 일

## 축제

아주 천천히 자라는 마을의 축제

## 문화사업

찾아가는 공연 '스낵버스킹'



##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는 오셀로

글 조용성(공연사업팀) · 사진 아시아문화전당



소위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이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는 작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 또한 그런 작품 중 하나다. 인간의 의심과 질투, 그로부터 파생된 파탄을 심도 있게 그려낸 이 명작은 그동안 수많은 창작자의 성전이자 오르지 못한 산으로서 각색되고 재창조되어 왔다. 그리고 오는 7월 21일, 판소리라는 아예 새로운 옷을 입고 누림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창작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이 고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원작 〈오셀로〉의 배경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키프로스라는 섬이다. 이곳의 장수 ‘오셀로’는 이방인이지만 유능하여 명성이 높다. 그를 시기하던 그의 기수 ‘이아고’는 갈망하던 부관 자리를 ‘카시오’에게 빼앗긴 데에 앙심을 품고 흥계를 꾸민다. 이아고는 오셀로로 하여금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와 부관 카시오가 밀회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결국 이아고의 꾀에 넘어간 오셀로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데스데모나를 죽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아고의 흥계였음이 뒤늦게 밝혀지고 오셀로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원작인 셰익스피어의 〈오셀로〉가 남성 중심적 세계관과 시간으로 전개되었다면, 〈판소리 오셀로〉는 원작을 단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녀(妓女)인 ‘설비(說婢)’를 통해 여성적, 동양적 가치를 투영하여 원작을 바라본다. 설비 ‘단(丹)’은 기녀라는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꾼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지위를 단순 전달자에서 주체적인 해설자로 재설정한다. 그녀는 작품 초반, 오셀로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신라시대의 향가 〈처용가〉를 부르며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덕분에 관객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옛 이탈리아의 이야기에서 친숙함을 얻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가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라 해도, 판소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탈바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판소리 오셀로〉는 오히려 이 차이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가야금, 아쟁, 피리, 양금, 생황 등 전통 악기들의 조화를 통해 극의 배경이 되는 조선의 어느 밤이라는 시간적 정서와, 이야기로 파생되는 서사적 정서, 각 인물에 대한 주관적 정서들을 풀어낸다. 특히 소리꾼 박인혜가 홀로 80분 동안 오셀로, 데스데모나, 이아고 등 각각의 캐릭터를 넘나들며 펼치는 판소리는 가히 압도적이다.

이러한 한국적 승화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유는 제작진 ‘희비쌍곡선’의 태생에서 찾을 수 있다. 배우 박인혜와 이번 공연의 연출가 임영욱이 이끄는 희비쌍곡선은 판소리에 기반해 동시대적인 주제와 감성을 다루는 창작집단이다. 이들의 작업은 전통공연보다는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혹은 강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장르와 매체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더 적절하고 매력적인’ 표현양식을 찾는 데 작업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판소리 필경사 바틀비〉는 미국 소설 〈필경사 바틀비〉를 판소리로 재해석하여 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국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판소리 어법에 맞게 각색해 번역 투의 억지스러움 없이 자연스러운 국악적 언어유희로 소화해냈다”고 평했는데, 이는 그들의 후작 〈판소리 오셀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고전으로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탄생한 새로운 오셀로를 만나보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공연 〈판소리 오셀로〉가 새로운 고전의 출발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공연일시 2018년 7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장소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문의 1899-3254



## 어떤 날의 기억, 양정욱 展

글 천한얼 · 사진 양정욱

그는 조각품을 포장하는 상자 안에서  
어떤 배치에 대해 고민을 했고 뜻밖의 구조를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그 조각품을 만들었을 때 보다,  
포장하는 것에 시간을 더 들이게 되었다.  
그가 조각을 마치고 우편으로 보냈을 때,  
그 상자 안에 내용물은 어떤 다른 것이 되었다.

- 양정욱



화성시문화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해 미술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 양정욱 개인전 〈우리는 바람이 부는 날에 작은 동물원과 그리고 더 작은 미술관을 갔다〉가 7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동탄북합문화센터 내 동탄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 조각가가 작품을 포장하면서 생긴 결과물을 다룬 시리즈인 ‘매번 잠들지 않고 배달되는 것들’의 기억을 담는다. 전시는 바람의 촉감, 동물원의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미술관의 조각 등 5점의 조각과 자유로운 동선을 통해 하나의 공간으로 뒤섞인다. 관람객들은 뒤섞이는 공간을 경험하며 날씨도, 장소도 다르지만 하나로 연상되는 기억을 찾게 된다. 전시를 준비한 양정욱 작가는 과거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작업을 했고 관람객들 또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좋았던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보려고 하면 단편적인 사건들이 질서 없이 생각이 나오, 사실 좋은 기억에는 순서도, 과정도 중요하지 않죠. 이번 전시의 배치도, 동선도 그와 비슷하게 꾸몄어요.”

양 작가는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의식의 흐름대로 공간에 집중하고 자유롭게 느끼며 감상하기를 권했다. 그는 전시를 통해 그 날의 하루가 바람, 동물, 미술관이 하나의 단편적인 이미지로, 혹은 느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움직임과 독특한 형태의 작품이 관람객과 소통하며 군데군데 작가가 의도한 이야기의 힌트를 던진다. 관람객들은 작가가 꾸민 시선을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억의 조각을 찾게 된다.

전시 외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작은 동물원 동물 옮기기’는 아이들이 전시를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니어처 제작 체험을 통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라면 전시 감상 후 발 빠르게 참여해보자. 이번 전시는 바빴던 일상에서 한걸음 물러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를 준다. 잊고 있던 내 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다시금 생기발랄한 내일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 전시 개요

전시제목: 2018 동탄아트스페이스 여름방학 특별기획 양정욱 展

〈우리는 바람이 부는 날에 작은 동물원과 그리고 더 작은 미술관을 갔다〉

전시기간: 2018년 7월 18일(수) ~ 8월 28일(화) | 09:30~17:30

전시장소: 동탄북합문화센터 1층 동탄아트스페이스

### 전시연계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작은 동물원 동물 옮기기

참여대상: 초등학교 4·5·6학년

일 시: 2018년 7월 26일(목) ~ 8월 16일(목) | 매주 목요일 4회

장 소: 동탄북합문화센터 M1층 영상교육실

참여방법: 선착순 신청(참가비 무료)



## 누군가의 미소를 담는 일

어느 화창한 날, 야목4리 마을회관에는 카메라를 든 10여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옷걸이에 들고 오신 할아버지, 고운 화장을 마치고 거울을 보는 할머니의 모습까지 들뜬 분위기가 느껴진다. 마을회관 한편에는 사진 전문스튜디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장비들이 설치되어 환한 조명을 밝히고 있었다. 제일 첫 번째로 조명 가운데에 앉으신 할아버지는 모자를 쓴 채 무뚝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모자를 들어내 몇 번의 빗질로 멋진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잘 듣지 못하시는 할아버지의 귀에 농담을 건네며 환한 웃음을 찍는데 성공한다.

글 · 사진 신혜진(기획홍보팀)

###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이날 촬영에 나선 사람들은 전문 사진작가들이 아닌 화성시미디어센터의 '실전! 인물사진 촬영' 반의 수강생들이다. 두 달여 간 이루어진 수업에 출석률 100%를 보일 만큼 열심이었던 수강생들은 수업의 마지막을 앞두고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장수사진과 취업을 앞둔 장애학생들의 증명사진을 찍으러 나섰다. 비록 아직은 비전문가이지만 능숙하게 조명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세팅하는 모습은 물론, 사진을 찍는 주인공들을 편하게 해 좋은 표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보니 이미 프로 사진작가의 모습이 다. 시작 전 담당자는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2~3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귀띔을 해주었지만 촬영 현장에는 매일 10여 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재능기부를 하고 있었다. 2~3명씩 조를 이루어 한 명은 촬영 주인공들의 머리와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고, 한 명은 주변을 정리하고 보조역할을 한다. 사진촬영을 하는 수강생 옆에서는 다른 수강생들이 모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건네면서 분위기를 띄워준다. 전문 촬영팀 못지 않은 자연스러운 촬영 현장이었다.

### 한 장의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

카메라 앞에 앉은 한 할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찍어본 지 5년은 훨씬 지났을거라고 하신다. 언젠가 여행을 위해 찍었던 여권사진이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그냥 사진 실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나선 촬영에서 카메라 앞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담으며 그 마음이 더 진한 진심으로 변해 갔다. 그건 아마도 이날 수강생들이 촬영한 그 미소가 담긴 사진이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의 미소를 담아내는 일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얼굴에 목에 고스란히 담긴 그들의 세월이 만들어낸 한컷의 웃음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다.

수업은 단순한 배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웃과 웃음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은 그저 인물사진 찍는 법을 익힌 것이 아니라, 사진 속에 사람 담아내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배움에서 시작된 나눔은 그들을 진정한 프로로 만들어 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 아주 천천히 자라는 마을의 축제

축제하면 생각나는 북적임과 화려함과는 달리 조금은 조용하고 한적하지만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는 축제가 있다. ‘민들레 연극마을’이라 불리는 화성시 우정읍의 작은 마을은 매년 여름 지역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열고 있다.

글 신혜진 (기획홍보팀) · 사진 극단 민들레

### 품앗이공연예술축제

품앗이공연예술축제(Festival PUM)는 우정읍의 이화뱅곳마을과 민들레연극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친환경, 생태 중심의 순수 공연예술축제이다. 자생적 지역특화축제로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농촌주민들과의 협업으로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매향리의 아픔과 같은 지역의 근현대사를 축제 속 이야기에 녹여내고 있다. 농촌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무대를 이용하고, 인위적인 장치들의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여 공간과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이는 것도 이 축제만의 매력이다. 축제에서는 배우와 함께 들꽃 가득한 시골길을 산책하던 아이들이 함께 꽃을 따고, 화관을 만들며 이야기를 따라가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연못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대나무로 엮어진 작은 공간도 무대가 된다. 마을 곳곳에 마련된 ‘잔디마당’, ‘닝쿨극장’, ‘다랭이극장’ 등 무대의 이름에서도 자연이 느껴진다. 자연의 공간 속에서 공연을 펼치다 보니 배우도 관객도 땀에 흠뻑 젖는 일이 부지기수지만 실컷 뛰어난 후에 먹는 시원한 수박의 맛처럼 어린시절 즐기던 여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 베이비드라마에서

#### 국제예술교류 레지던스까지

제10회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극단 은세계의 〈오페리아의 그림자극장〉을 개막공연으로 총 11작품의 국내외 초청작과 레지던스 작품 10여 개를 선보인다. 어느 한 할머니의 저승 가는 길을 한국적인 색을 입혀 유쾌하게 풀어낸 노마딕씨어터의 〈나들이〉, 우리 전통연희 중 남사당놀이 인형극 ‘덜미’의 형식과 고성오광대의 캐릭터들을 마리오네트, 손인형, 테이블 인형 등 다양한 양식을 활용해 만들어낸 창작인형극 〈문동왕자〉,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자놀이와 지경다지기를 활용한 대동놀이 〈놀이왕 사자〉 등 우리의 전통을 소재로 만들어낸 공연들을 선보인다.

또 해외 초청작으로는 물을 소재로 최소한의 대사와 소통의 시선, 그리고 침묵 속에서 단순하고 효과적인 움직임으로 어린이들이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유도하고,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탈리아의 〈물방울들〉, 야생화 꽃꽂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이케바나’ 전수자 카타기리 아츠노부의 자연예술프로젝트 〈들꽃과 춤을〉까지 품앗이공연예술축제에 서만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 영유아들만을 위한 2편의 베이비드라마도 선보인다. 극단 민들레가 제작한 〈젼젼〉과 〈새〉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연이다. 〈젼젼〉은 부모와 아기가 하나되어 여러 움직임을 함께 하며 공연을 만들어간다. 〈새〉는 우리의 전통 춤과 가야금 선율을 기반으로 어미 새를 찾는 아기 새의 이야기를 담았다. 전통무용을 통해 보는 새의 움직임과 다양한 생활소품으로 만들어내는 병아리, 참새, 황새 등은 아기들의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한다. 매해 여름 민들레연극마을에서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또한 예술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네팔,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10여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TYA 레지던스’를 진행한다. 각각의 연기자들이 자국의 전통 이야기나 설화를 교류하고 예술가들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공연한다.

이외에도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의 전통놀이마당과 천연 염색, 대나무 물총 만들기, 박 그리기 등 농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지역 특산물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제10회 품앗이공연예술축제  
공연일정 7월19일(목)~22일(일)  
공연장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민들레연극마을 및 마을전체)  
공연문의 031-358-7587



## 찾아가는 공연 ‘스낵버스킹’

글 신혜진(기획홍보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Busk의 어원은 ‘찾다, 구하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부스카르(buscar)이다. 거리에서 고용인, 물주 등을 찾으며 공연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buscar라고 하였고 그것이 거리 공연의 뜻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 대학거리에서 공연을 하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팀의 이름 ‘버스커 버스커’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버스킹은 1860년대 정도부터 영국에서 탄생된 단어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거리에서 시작된 만큼 유럽 여행지의 곳곳에서는 바이올린, 첼로 등의 현악기부터 트럼펫, 트럼본 등의 관악기, 키보드와 함께 부르는 재즈음악 등 유명 공연장의 라인업 못지않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버스킹이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홍대 앞 거리는 90년대 언더그라운드 인디밴드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데뷔를 앞둔 아이돌 그룹의 거리공연까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른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버스킹의 명소가 자리 잡았다.

버스킹의 가장 큰 매력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즐거움일 것이다.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닌 무심코 걷다가 마주친 공연과 그 거리가 어우러진 분위기에 취하게 된다. 하지만 길거리 공연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변화가가 아니면 만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근에는 곳곳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한 버스킹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11월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어떤 도시들은 광장을 중심으로 버스킹을 위한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유명 버스커들을 섭외해 공연을 제공하기도 한다. 거리공연이 평범한 공간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공연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지역의 매력을 끌어올린다. 전통시장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지역의 공원을 명소로 만들기도 한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공연’을 위해 17년도부터 ‘스낵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거리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단체들을 공모해 화성시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는 스낵버스킹은 아티스트들에게는 안정적인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거리에서 만나는 공연의 즐거움을 선물한다. 향남 2지구 광장, 동탄2신도시 청계중앙공원, 봉담 호수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스낵버스킹에는 클래식, 국악, 미술, 인형극, 재즈, 샌드아트까지 여러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6월까지 약 50여 회의 버스킹이 이루어졌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지고 있다.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스낵버스킹’으로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화성으로 모여드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많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닌  
무심코 걷다가 마주친 공연과  
그 거리가 어우러진 분위기에  
취하게 된다.  
”

**스낵버스킹 7~8월 일정**  
매주 금요일 7시, 7시 30분 | 향남 2지구 광장  
매주 토요일 7시, 7시 30분 | 개나리공원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날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가다

마음을 씻어주는  
풍광을 따라가다

## 컬처트래블

볼 수 없는 것을 봤다고 믿어보기  
당성을 걷다

## 마을기록

산그늘이 품은 마을  
천연기념물이 된 성수를 찾다

## 건축기행

화성 우정면 매항리 매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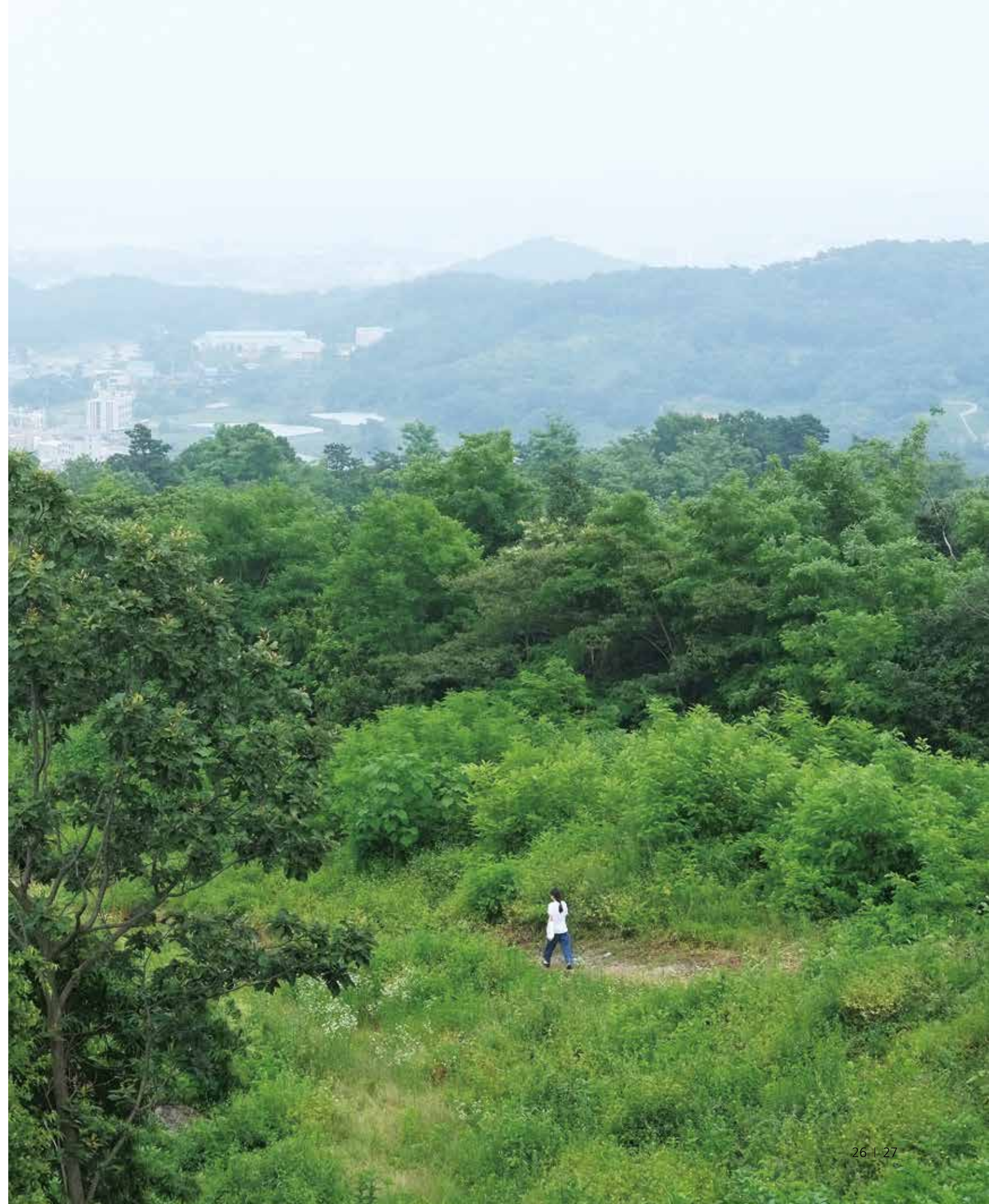


## 볼 수 없는 것을 봤다고 믿어보기 당성을 걷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이 있다. 시간의 영향으로, 어떤 사건이나 중요한 타인과의 만남 같은 것으로 생겨난 모습들의 총체가 한 사람이라는 어렵קות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지기 위해 서로 많은 걸 궁금해한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해, 지금 당장의 일뿐만 아니라 멀리 상상하는 것에 관해서도 질문한다. 그런 과정은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일, 뿌연 창문을 닦아내는 일 같다. 사람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장소는 사연이 아주 많아서 그걸 알아가는 일만으로 새로운 장소가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평범하고 조용한 숲길이었던 화성의 '당성'이 내게 그랬다.

글 · 사진 전진우





## 장소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알아가는 일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과거가 현재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대충은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무시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다. 또 특별한 역사적 사건 하나를 골라 팻말을 세워 소개하며, 장소가 가진 수많은 얼굴을 덮어버리는 것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 물론 그런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얼마 전 화성 서신면에 위치한 당성에 다녀온 뒤로 마음에 남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 우선 그게 어디든 '장소'에는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쌓여온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중 몇 가지 일만 기억하거나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일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며, 그런 관계가 갖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대상에게 조금일지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 또 다른 내 안의 사건들과 부딪히고 섞이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생각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다.

당성에 관해 내가 처음 알게 된 정보는 그곳이 '문'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성에서 서해로 나가 연안항로를 따라가는 길은 고대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길이었다. 중국으로부터 교역의 파트너로 인정받은 백제는 당성으로부터 서해 바닷길을 열기 시작했는데, 서해안 일대에서 당시 백제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것과 중국에서 발견된 백제의 유물들이 바로 그 증거로 보여진다. 동진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계수호, 악을 꿔일 때 쓰던 청동초두, 동전무늬 항아리 편이 대표적이었다. 일단 그런 기본 배경을 알고 나니 성곽을 따라 걷는 내내 자연스럽게 먼 곳을 바라보곤 했었다. 지금처럼 '미지'라는 단어가 힘없이 쓰이는 시대와 달리, 그때 바다 건너 세계와의 교류는 그 자체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돈을 벌기 위해 효율적인 유통 통로를 만드는 것에 더해, 나와 다른 존재를 향한 순수한 호기심이 듬뿍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두 번째로 알게 된 정보는 당성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의 증거가 될 만한 유적들을 연구자들이 발굴하면서 당성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이에 화성시도 발을 맞춰 역사 문화 교육의 공간으로 당성을 재조명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성곽과 망해루지 등 주요시설을 복원하고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 전시관과 참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역사 연구에 중요성을 깊게 인식한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내겐 고즈넉한 숲 산책길이 그들의 눈에는 두꺼운 책처럼, 더 나아가 거짓말 없이 대화가 가능한 존재처럼 보인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를테면 농부가 평야를 바라보는 일, 천문학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은 아마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과는 달리, 무언가를 읽고 있다고 표현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나는 문득 그런 시선이 삶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할 수 있었다.



“  
관심 가지지 않는 일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며, 그런 관계가 갖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

## 만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기 상상의 기술

1km가 조금 넘는 당성 둘레길은 어느 순간부터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내가 그날 알게 된 사실은 단지 몇 가지일 뿐이었지만, '알게 된' 것들은 이미 생명을 가진 것처럼 나를 궁금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또 내 안에 있던 생각들과 섞여 새로운 생각을 낳고 있었다. 당성이 아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과거는 어땠는지 궁금해졌고 2018년의 한국이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백 년쯤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하는 식의 생각이 꿈틀댔다. 한편으로는 괜히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는 상상이었다. 우연히 한 비평가의 칼럼에서 읽은 구절이 떠올랐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의 일만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감능력이 남다른 이에게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 심지어는 역사 속 이야기에서도 실제적인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 사람은 아주 넓은 시간대의 세계를 좀 더 민감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내가 당성에 다녀와서 이런 공감능력을 크게 얻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면 나는 오히려 영영 그릴 수 없는 인간에 더 가까웠다. 그런데 그날 나에게 가슴 떨리는 일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성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돌들을 멀리서 바라보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손을 대보았다. 여름의 냉쿨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다가섰던 방금 전 내 모습을 이 돌이 지켜보고 있었을까. 그런 조금 우스운 생각을 하면서, 돌을 의인화하는 일에는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어떤 창피함이 있었다. 그런데 문득 나는 한 얼굴이 궁금해졌다. '아주 오래전 이 돌을 싣고 와 힘들게 쌓았을 사람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배 아래쪽에서 찌릿한 기분이 들었다. 고단한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떠올린 것이 아니었다. 또 '큰 돌로 줄을 잘도 맞췄구나' 하며 신기하게 여겼던 것도 역시 아니었다. 나는 그를 전혀 모르고 그도 나를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만난 적 없는 우리가 이 세상 비슷한 언저리에 살며 같은 돌에 손을 대 보았다는 한 가지 사실에 내 마음이 떨렸던 것이다. 그 생각이 너무 엉뚱해서 스스로를 계속 놀렸지만, 한편으로 영원히, 혹은 종종이라도 그런 일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 싶었다.







## 산그늘이 품은 마을 천연기념물이 된 성수를 찾다

글 박이넷 · 사진 편집부

화성 전곡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물푸레나무가 있다.  
수령 약 350여 년, 나무 높이 약 20m, 줄기 둘레 약 4.7m.  
긴 세월 마을을 지켜온 아름다운 노거수(老巨樹)를 찾아갔다.

### 구봉산 앞 골짜기 그늘 마을

오후 일곱 시 삼십 분. 일몰을 코앞에 두고 서신면 전곡리로 향했다. 화성시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로 손꼽히는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를 보기 위해서였다. 퇴근길 러시아워를 뚫고 저수지 옆 좁고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다행히 하지를 앞둔 터라 아직도 날이 밝았다. 해 질 무렵 만난 거대한 물푸레나무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장관을 사진에 담자마자 순식간에 산으로부터 그림자가 졌다. 물푸레나무가 하늘을 주홍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전곡리는 구봉산 앞 골짜기를 뜻하는 ‘앞실’의 전(前) 자와 계곡이 많다는 뜻의 곡(谷) 자를 합한 지명으로, 남양 홍씨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웅지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을 토박이 홍상유 어르신(84세)에 따르면 마을이 북향이라 그늘이 졌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 마을의 안녕을 빌던 신성한 나무

물푸레나무의 가지와 껍질을 물에 담그면 푸른 물이 우러난다. 『동의보감』에는 이 물로 눈을 씻으면 안질을 낫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 물푸레나무는 단단하고 탄성이 좋아서 약재뿐 아니라 선비의 회초리, 농부의 도리깨, 야구 선수의 방망이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쓰임새가 많은 탓에 오래 살지 못하고 크게 자라지 못하는 비운을 타고난 나무다. 그러나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는 이런 운명에서 예외다. 가지 퍼짐이 30m를 넘을 만큼 규모가 매우 크고 수형도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당산나무로 여겨 섬김 까닭이다. 덕분에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는 오랜 세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과거 섬김을 받던 수호목에서  
이제는 보호를 받는 천연기념물이 된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 본토박이의 등곳길 이정표

전곡리는 원래 남양군 서여제면에 속해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구릉내, 무두리, 은장동, 노가리, 독жат골을 합쳐 전곡리라 하여 수원군 서신면에 편입되었다.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주변은 현재 화성시와 서신면에서 철저히 천연기념물 관리를 하고 있다. 물푸레나무가 내려다보던 마을 옛 모습이 궁금했다. 때마침 안익균 전곡1리 이장님으로부터 홍상유 어르신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다 돌아가시고 그분만큼 오래 거주하신 분이 안 계세요, 나는 삼십 년밖엔 안 되었지.”

해가 완전히 진 저녁 여덟 시쯤 홍상유 어르신 댁을 찾았다. 대문 안엔 커다란 솔이 걸려있고, 뜰 ㅁ자 한옥 한가운데 자리한 우물이 인상적이었다. 홍상유 어르신은 이곳에서 나고 자란 본토박이다. “여기가 흥씨 집성촌이었어. 동네는 빠삭하지. 집집마다 손갈이 몇 갠지도 다 알지.” 어르신에게 물푸레나무와 마을의 옛 모습을 기억하시느냐고 여쭙보았다.

“그럼, 기억나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때 서신고등공민학교지. 여기서 밥을 먹고 나가면 그 저수지 있잖아? 그 길로 산길을 넘어서 동네가 하나 있어. 지금 거길 상안리라고 그러는데, 물푸레나무 바로 그 옆 소로길로 학교를 넘어 땡겼어.” 예전엔 그랬다며 껄껄 웃는 어르신 목소리가 오늘 아침 일을 이야기해주듯 생생했다.

“  
나무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숨바꼭질할 때  
들어가서 놀고 그랬죠.”

### 기억으로만 남은 나무 구멍 이야기

문화재청 조사 기록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모여 나무 밑에서 동제와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가 있는 땅은 최근까지 홍사득 씨(57세) 가문의 사유지였다. 그에게 물푸레나무는 신나는 놀이터였지만 때론 무서운 대상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전에 있던 일은 모르지만,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옛날엔 나무에 제사도 지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죠. 나무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구멍이 커서 동굴 같았어요. 숨바꼭질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죠. 하지만 무섭기도 무서웠어요. 나무가 크기도 크지만 구멍 안에 뱀이나 동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무당들이 뭘 많이 걸어놓은 것도 어린이 눈에는 무섭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이라고 그러죠? 살 맞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죠. 천연기념물이 될 정도로 물푸레나무가 중요해지니까 동네 가운데로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나무가 죽을 염려가 있어서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었어요.”

나무가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일 수 있었던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2006년부터라고 한다. 홍상유 어르신도 이전에는 물푸레나무의 상태가 나빴다고 증언한다.

“문화재로 관리하기 전에는 아주 그냥 고목이었거든? 죽은 가지도 많고, 근데 관리를 해가지고 영양제 같은 걸 넣어서 그런 건지 나무가 꽤 많이 살았지 뭐야. 그때 구멍에 새가 들어가서 새집을 짓고 그러더라구. 지금은 나이 먹어서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러지만 애들 적엔 나무가 그렇게 고목이고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고 무서운 감은 가졌었다고.”

과거 섬김을 받던 수호목에서 이제는 보호를 받는 천연기념물이 된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푸른 나무 그들은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 화성 우정읍 매향리 매향교회

지명에 남겨진 매화 향기가 아닌 포탄의 화약 냄새를 조금씩 지우고  
50여 년 땅의 상처를 평화를 이야기하며 치유해가고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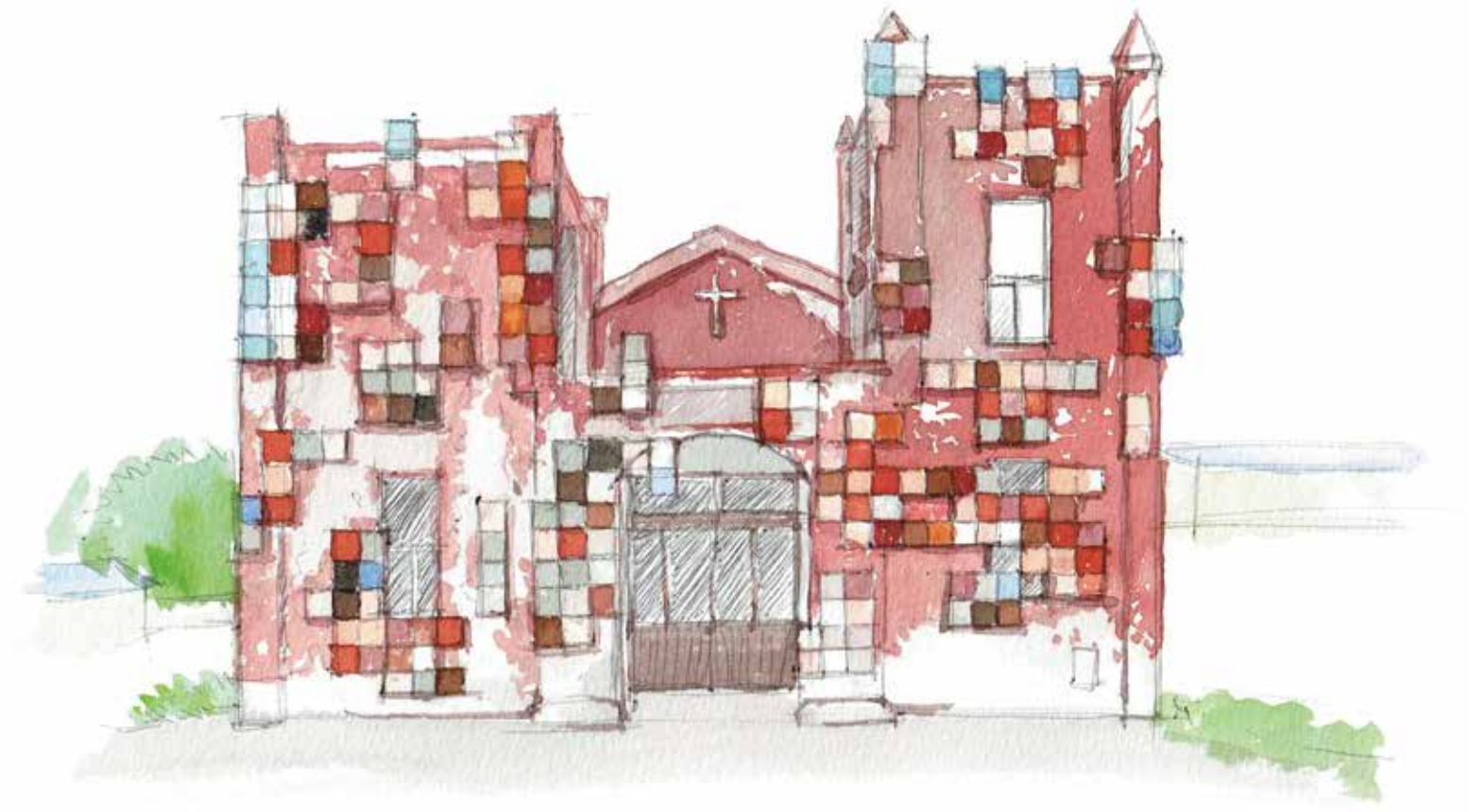


### 건축물에 담긴 세월과 아픔

매향교회는 1968년 건립되었다. 지명에 매화 향기가 어려웠지만 실은 미군의 공군 사격장으로 운영되었던 쿠니 사격장 때문에 화약 냄새가 나고 폭발 소리와 진동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던 마을의 교회였다. 이곳은 오래전 공군 사격의 진동 때문에 지붕이 붕괴되었다고 한다. 이후 인근에 새 예배당이 건립되면서 지붕이 무너진 옛 예배당은 오랜 시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 다시 꽃이 피고 평화가 찾아오리라

2005년 미군이 빠져나가고 땅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평화마을이라 이름 붙여지고 훈련에 사용된 폭탄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매향교회 옛 예배당은 이용백 작가에 의해 입면이 모자이크 작품으로 꾸며졌는데, 가리려야 가릴 수 없는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모자이크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곳은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로 사용되며 시간을 정하여 오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전쟁의 기억을 보듬고 평화를 불러오길 기대한다.





**공간 & 공간**

만 명의 스승을 만나는 세상  
만세작은도서관

**문화살롱**

자매애로 뭉치고 음악으로 힐링하는  
봉담여성합창단

**공공미술**

바다에 앉아 바다를 마주하다  
제부도 경관벤치

the  
찾다

무심코 지나친  
예술의 색을 찾다





## 만 명의 스승을 만나는 세상 만세작은도서관

글 천한얼 · 사진 편집부

“만세작은도서관은 눈물 나게 고마운 곳이에요.  
이곳 발안은 인구가 줄어들과 공공기관도  
빠져나가고 있는 원도심이에요.  
이곳에 문화소통을 이루고  
아이들의 소리가 울리게 만들었죠.”

-이효정 관장(발안만세시장 상인회장)



### 지역주민과 상인회가 손잡고 꾸린 작은도서관

만세작은도서관은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한가운데 있다. 비록 시골벽적 한 시장 속에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문화공간이다. 이곳이 생기게 된 계기는 책을 좋아하는 몇 명의 엄마들이 독서모임을 열고자 모이면서였다. 매년 책을 읽으러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갔던 엄마들은 문득 ‘이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책을 읽자!’라는 생각을 했다. 때마침 이곳에 가장 오래된 서점인 학우당에서 3층 공간을 1년간 빌려준다 하여 규모를 좀 더 키워 작은도서관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자비로 서가를 꾸미고 기증도서를 찾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책장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만세작은도서관은 2015년 5월 개관을 했고 총 9명의 운영위원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은 아이를 둔 학부모 외에도 발안만세시장 상인회 2명이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가지각색의 손글씨로 꾸며진 입구부터 따뜻한 애정이 느껴지는 만세작은도서관은 이곳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책과 함께 문화와 소통,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곳에는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해 매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만세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야외 체험 활동을 펼친다. 또, 주변 중·고등학생을 잇는 멘토&멘티 시민교육과 성인반 인문학 동아리, 부모교육 수업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발안만세시장에서 함께 노는 만세놀이터, 8·15 광복절 기념 만세 사생대회 등 마을의 문화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한마음으로 머물다가는 작은 사랑방

만세작은도서관이 있는 평리는 향남읍에서도 구시가지로 오래된 도로가 망가진 채 방치된 곳이 많다. 이곳엔 도서관이나 영화관 등 문화공간이 없어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 속에서 만세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는 오아시스였다. 이들은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을 고려해 다양한 국기로 벽화 그리기, 낙후된 시설 민원 요청 등 끊임없이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행보 때문인지 이들이 행사를 열었다 하면 주민 전체가 즐기는 마을축제가 되곤 한다. 이곳의 운영위원인 홍성순 씨는 지난해 연말에 열린 후원의 밤과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을 초대하고 컵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연주하는 컵타공연을 펼쳤어요. 많은 주민이 오셔서 호응을 해주셨는데 그 때 나는 교감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을 알고 함께 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감동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만세작은도서관이다. 이들은 여전히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넘어 마을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밥고리’가 이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운영자인 오현정 씨는 “각자 반찬을 가져와 함께 밥을 나눠먹는 만세 밥고리 시간이 있어요. 다함께 밥을 먹으며 도서관에 대해,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해요. 그러다 보면 외부인도 참여할 계기가 생기고 함께 미래도 그려볼 수 있어요. 밥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문화 불모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던 만세작은도서관. 어느새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 소통공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협력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자매애로 뭉치고 음악으로 힐링하는 봉담여성합창단

글 박이넷 · 사진 봉담여성합창단, 편집부

삼봉산과 갈담면이 합쳐져 봉담읍이 되었듯  
봉담여성합창단도 서로 다른 언니, 동생이 만나 이룬 한 가족처럼  
정이 흘러넘친다. 봉담여성합창단의 노래가 따뜻하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만큼이나 소중한 단원들의 우애가 있기 때문이다.



### 풍부한 올림과 섬세한 음색으로 하나 되다

봉담여성합창단의 연습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봉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이뤄진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만나는 사이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처럼 까르르 웃으며 인사를 나눈다. 갑작스런 폭우에 홀 안이 춥다며 따뜻한 녹차를 나눠 마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바리바리 싸온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화기애애한 단원들의 표정만 봐도 이미 조화로운 합창곡 하나를 감상한 기분이 들었다. 봉담여성합창단은 2011년 3월 창단된 아마추어 여성 합창단이다. 봉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발로 뛴 김복순 지휘자의 노력이 창단 계기가 되었다. “저는 협성대에서 공부했어요. 이 동네 정말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배운 것을 환원하고 싶었어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직접 홍보 전단지도 붙였다는 김복순 지휘자는 당시 열정을 “울인 했죠”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시작한 첫 오디션에 7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했다. 약 1년의 시간을 거쳐 각자 음 색깔에 맞는 파트를 결정하고, 클래식 음악이라는 근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끼리 뭉쳐 현재 40명의 단원이 되었다. 이들의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연간 정기연주회가 올해 6월 30일자로 벌써 6회째를 맞이했다. 이젠 화성 뱃놀이 축제, 화성 예술제, 봉담읍 삼봉삼담 축제 등 수많은 외부 공연에 초청될 만큼 실력 있는 합창단으로 알려졌다.

###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클래식 음악

봉담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는 다채롭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즐겨 부르시는 트로트,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주제를 클래식 음악 반주와 환상적인 코러스로 들을 수 있다. 경쾌한 호루라기 소리와 구령에 맞춰 국민체조가 연주되자 땀방의 선곡에 관객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온다. 김복순 지휘자에게 정기연주회는 ‘우리 동네 큰 잔치’다. 사람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는 봉담여성합창단의 따뜻한 정서는 관객뿐 아니라 단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합창단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한 선옥 단원 역시 봉담여성합창단을 통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최근에 가족이 많이 아파서 정기연주회에 못 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큰 일이 있었을 때 지휘자님, 단원 언니들, 친구들이 같이 물어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행히 가족의 건강이 나아져 활짝 웃을 수 있게 된 한 선옥 씨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꽃타령 안무까지 맡게 됐다며 수줍게 자랑했다. 꼭 음악을 잘하지 않아도 합창을 통해 여성들이 용기를 갖고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봉담여성합창단. 김복순 지휘자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단원들한테 그랬어요.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우리의 연주는 기쁨이다. 합창을 위해 우리가 노력한 만큼 큰 기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삶에 활력이 필요한 여성분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합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 Tip 화성시 생활문화 동호회

화성시문화재단은 생활문화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문화 전반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2/30이상 화성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원받는 동호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현재 117개의 다양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 바다에 앉아 바다를 마주하다 제부도 경관벤치

글 천한얼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제부도가  
예술과 젊은감성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숨에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끈 비결은 무엇일까.

조개의자 Amphitheater

## 문화예술섬으로 탈바꿈한

### 제부도

제부도는 하루에 두 번 제부도와 서신면 송교리 사이 약 2km의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해수욕과 갯벌체험을 즐기고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통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분별한 개발과 영업행위의 증가로 섬 본연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제부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2016년부터 경기도와 화성시, 경기창작센터가 손을 잡고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제부도 고유의 모습을 회복시키면서 디자인과 건축·예술을 통해 문화예술섬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부도 곳곳에 경관벤치, 제부도 아트파크, 포토존 등 자연지형과 어울리는 예술적 공공조형물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변질된 관광명소의 인식을 떨쳐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다. 제부도는 문화예술섬이라는 새 명찰을 달고 지난해 2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 경관벤치(SEA)

예술과 공공시설이 결합된 공공디자인은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 이로 인해 제부도 곳곳이 예술적으로 변모했지만 그중에서도 서쪽 해안산책길을 그윽하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경관벤치’가 꽤나 매력적이다. 해안산책길을 둘러싼 울타리를 따라 걷다보면 울타리 대신 바다를 향해 시야를 넓힌 투명한 유리 난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는 해안 경관을 다양한 각도로 감상하고 머물 수 있는 제부도만의 경관벤치가 설치돼 있다. 금속과 목재로 이루어진 경관벤치는 standing(서서의자), sun-bed(하늘의자), amphitheater(조개의자) 총 3개의 유형으로 디자인 되었다. 각각의 벤치는 산책을 하다 가볍게 걸터앉을 수 있고, 반쯤 누워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와 맞닿은 해안선까지 감상할 수 있다. 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조개의자는 여럿이 함께 앉아 서해의 낙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관벤치는 눈길을 끄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휴식을 위한 편안함도 고려했다. 직접 앉아보면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감각으로 풍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해가 질 즈음 경관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석양은 한참을 보아도 눈을 땔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한편, 경관벤치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조형미를 인정받아 제부도 아트파크와 함께 2017년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과 경기유망관광 10선 선정 등 드마라틱한 경관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여름, 경관벤치와 이어진 다양한 해변 벤치와 제부도 아트파크 등 제부도 곳곳에 위치한 조형물을 이용해 잊지 못할 섬의 풍광을 담아보자.



서서의자 Standing



하늘의자 Sun-bed



#### 문화소식

재단 주요 행사 및 사업소식

####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동탄아트스페이스 큐레이터

유도경·전하나

#### 문화캘린더

7·8월 문화행사 캘린더

the  
하다

함께  
더해지다





### 병점도서관

#### 「길 위의 인문학-공간으로 인문학을 말하다」 운영

7/4, 7/11, 7/18, 7/21 매주 수요일

병점도서관 ☎ 031-226-1822

병점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공간으로 인문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을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가치를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공간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3차에 걸쳐 강연 9회, 탐방 3회로 진행된다. 1차시는 6/20, 6/27, 6/30로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공간, 한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차시는 7/4, 7/11, 7/18, 7/21에 걸쳐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지식이 담긴 공간'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점도서관 홈페이지(www.hscitylib.or.kr/bjlib/)에서 확인 가능하다.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8월 여름방학 특강」 운영

8/6(월) ~ 8/10(금)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031-8003-0748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에서는 8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강은 8월 6일을 시작으로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방학프로그램에서 초등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 <신나는 오토마타 건축교실>이 눈에 띈다. 수동으로 움직이는 굴삭기의 작동법을 알아보고 직접 황토하우스를 만들어보며 건축적인 시각을 키워본

다. 또 6~7세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와 함께하는 생각그림> 수업이 진행된다. 유명 동화와 연계한 미술심리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지니어스 코딩수업>은 코딩을 통한 간단한 손 작품 만들기 교육으로 아이들이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www.hscitylib.or.kr/dbnara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화성시미디어센터 「2018 여름미디어스쿨」 운영

7/30(월) ~ 8/10(금)

화성시미디어센터 ☎ 031-8003-6474

화성시미디어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부터 '2018 여름미디어스쿨'을 운영한다. '2018 여름미디어스쿨'은 화성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과 가족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2018 여름미디어스쿨'은 초등학생의 활동성을 증진하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석산의 산책로를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자연사진을 찍는 <반석산 자연탐험 어린이 사진가>부터 <어린이 1인 방송 제작단>, <도전 아역배우 오디션> 등을 운영한다.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케치&아두이노 코딩>, <청소년 1인 방송 제작단>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게 배우는 실용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화성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media.hcf.or.kr/)에서 7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 「Rainbow Therapy(컬러·아로마·바디 테라피)」

##### 무료 특강

7/3(화)

동탄북합문화센터 다목적실 ☎ 031-8015-8140

요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탄북합문화센터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요가를 활용한 '레인보우 테라피' 무료 특강이 7월 3일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요가에 컬러 테라피와 아로마 테라피를 접목하여 시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보이고자 한다. 특강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동탄북합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생체에너지 측정기를 통한 개인의 컬러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로마향을 처방받고 아로마를 활용한 요가를 실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특강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동탄북합문화센터 홈페이지(hdmc.hcf.or.kr/) 또는 센터 내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 「2018 안전체험학교(미취학 아동 안전수영)」 특강

7/24(화) ~ 8/24(금)

동탄북합문화센터 수영장 ☎ 031-8015-8178

동탄북합문화센터 운영팀은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관내 공공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취학 아동 안전수영 '2018 안전체험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미취학 아동들의 물놀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진행되며,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어 입장료 2,000원만 납부하면 무료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운동부터 물과 친해지는 법, 페트병을 활용해 물에 뜨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모

집기간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4개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총 3회(1회, 40분)에 걸친 안전체험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전체험학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추후 대상을 확대하여 사설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동탄북합문화센터는 2017년 5월 (사)대한생존수영협회에서 안전인증 교육수영장으로 인증 받았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여름방학맞이

#### 「2018 여름생활학교 : 잘한다! 자란다~ 뽀뽀!」

8/1(수) ~ 8/31(금)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031-8059-1783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8월 한 달간 '2018 여름생활학교 : 잘한다! 자란다~ 뽀뽀!'를 진행한다. 생활 속에서 즐기는 재미있는 클래스를 표방하는 본 행사는 <목공DIY>, <우리동네공방>, <오픈키친>으로 구성된다. <목공DIY>는 손쉽게 목공을 체험하고 만드는 목공방에서 다육정원과 업사이클링 동물 오브제 만들기를 진행한다. <우리동네공방>에서는 친환경 소이캔들, 통가죽 카드지갑, 드림캐처 만들기를 진행한다. <오픈키친>에서는 맥시칸 '퀘사디아'와 뉴욕 '햄버거'를 만들고, 보호자 동반 하에 '꽃 앙금 떡설기' 만들기를 진행하여 친구들과 요리하고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관계자는 "지역별, 계층별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방학마다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8 생활문화기획학교」 2기 개설

7/10(화) ~ 12/4(화)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031-8059-1783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화성시 관내 지역문화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 생활문화기획학교’를 개설한다. 매주 화,목, 7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청년기초반 및 일반대상 기초반과 심화반, 총 3개로 나뉜다. 생활문화예술 관련 강의와 더불어 선진지 벤치마킹, 기획서 작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강사진은 생활문화예술전문가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수강 및 문화기획 전문가로 구성된 담임 멘토단 1:1 멘토링 등 문화기획자로서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수료 후 재단 내 행사 연계 등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지원대상이 된다. 이 과정은 지난해 ‘2017 생활문화기획자양성과정’으로 1기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들은 경기교육청주관 ‘꿈의 학교’ 공모 선발,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등 생활문화기획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2018 화성예술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참여자 모집

8/25(토)

김일지, 윤성필 작가 작업실

화성시문화재단은 오는 8월부터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탐방하는 화성예술플랫폼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옆집에 사는 예술가:화성편’에 이어 재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화성예술플랫폼은 지역예술가의 작업실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그 과정을 담은 전시를 통해 아카이브



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픈스튜디오는 매주 토 8/25, 9/1, 9/8, 9/15, 10/20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약 10명의 작가들을 그들의 작업실에서 만나 작업 현장에서의 생동감을 느끼고, 대화를 통해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2018년 첫 번째 방문은 단추와 규방공예 등을 재해석한 김일지 작가와 모터와 자석을 통해 움직이는 조각과 뉴미디어 작품을 선보인 윤성필 작가의 작업실이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8월부터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hcf.or.kr)를 통해 매회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하며, 확정 안내를 받은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 2018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8/4(토) 오후 3시

‘디토 파라디소’ 누림아트홀

8/19(일) 오후 3시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밤베르크 교향악단’ 반석아트홀

8/26(일) 오후 3시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석아트홀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에서 오는 8월부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되었던 우수한 공연을 가까운 공연장에서 대형스크린으로 만나는 공연영상화사업인 ‘Sac on Screen’이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첫 번째 상영작으로는 디토 10주년 갈라 콘서트인 〈디토 파라디소〉가 8월 4일 누림아트홀에서 상영된다. 국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스타 임동혁, 리처드 용재 오닐, 성민제 등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예술의전당 공연 당시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공연으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어서 8월 19일 반석아트홀에서 독일 관현악의 숨은 병기 밤베르크 교향악단과 현존하는 최고의 지휘자인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함께하는 베토벤 교향곡 6번(전원)이 진행된



다. 2016년 클래식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음악회에 선정되기도 했던 당시 공연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8월 26일 반석아트홀에서 김재엽의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가 상영된다. 이 공연은 40년 전 독일로 건너간 간호 여성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연극을 통해 생생하게 담아낸다. 특히 실황에 못지않은 고화질의 영상과 사운드는 공연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물론 아티스트들의 표정과 열정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ac on Screen’의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은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반석아트홀 1588-5234, 누림아트홀 1899-3254로 문의할 수 있다.

## 「오픈 더 콘서트」 하반기 일정

8/18(토) 오후 7시 고상지 밴드

‘땅고, 밀롱가의 밤’ 야외공연장

8/25(토) 오후 7시 진조크루

‘다이나믹 비보이쇼’ 야외공연장

10/6(토) 오후 7시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10월의 씨네뮤직’ 야외공연장

화성시문화재단 대표 야외공연으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오픈 더 콘서트’가 오는 8월에도 이어진다. 첫 무대로는 8월 18일, 한 여름 밤을 뜨겁게 달굴 농염하고도 매혹적인 탱고 음악이 준비되어 있다. 국내 최정상급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가 이끄는 고상지 밴드의 음악과 그에 맞춰 탱고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을 통해 여름밤에 어울리는 라틴의 열정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서 8월 25일, 전 세계 비보이팀 랭킹 1위에 빛나는 댄스팀 진조크루가 비보이쇼를 선보이기 위해 야외공연장을 찾는다. 본 공연은 화려한 전통 비보잉과 비트박스, 국악 등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야외공연장을 채울 예정이다. 세계 최초 5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한 최정상급 댄스팀의 무대를 눈앞에서 만나는 흔치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픈 더 콘서트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공간을 채우는 색다른 선택 동탄아트스페이스 큐레이터

글 · 사진 **신혜진 (기획홍보팀)**

북큐레이션, 여행큐레이션, 큐레이션 커머스까지. 모든 것을 ‘골라주는’ 시대. 그 서비스의 시작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큐레이터’이다. 커다란 빈 공간에 선택을 통해 그 미술관만의 색을 채워 넣는 미술관 큐레이터. 시즌마다 어떤 장르의 작품들을 채울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채울 것인지 그 작품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배치로 놓이는지. 그 모든 것들은 미술관을 담당하는 큐레이터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동탄복합문화센터를 지나는 누구나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미술관 ‘동탄아트스페이스’에는 하얗고 커다란 공간을 채워나가는 2명의 큐레이터가 있다.



큐레이터 **유도경**

누구보다  
전시를 즐기며  
만들어가는

멀리서 마주쳐도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복합문화센터 곳곳을 다니는 그녀는 여러여리한 외모와는 달리 높은 사다리에 올라 갤러리의 전등을 갈기도 하고, 무거운 박스도 척척 나른다. 같은 팀원의 제보에 따르면 전시 전날까지는 ‘폐인’의 모습이었다가 전시 오프닝 날 예쁜 ‘큐레이터’로 변신한다고. 평소 미술을 좋아하던 그녀는 수원미술전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인턴 제안을 받고, 다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쉬는 날에도 다양한 전시를 보러 다니며, 아이디어를 모아 동탄아트스페이스에 어울리는 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시를 선택할 때 어떤 작품보다 갤러리의 이미지가 강하게 적용되는 만큼 쉽게 지나며 볼 수 있는 미술관인 동탄아트스페이스를 위한 전시를 고민하고 있다. 천장이 높은 동탄아트스페이스의 매력을 살려 여백과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공간과 함께 어우러지는 전시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그녀의 또 다른 선택이 기대된다.



큐레이터 **전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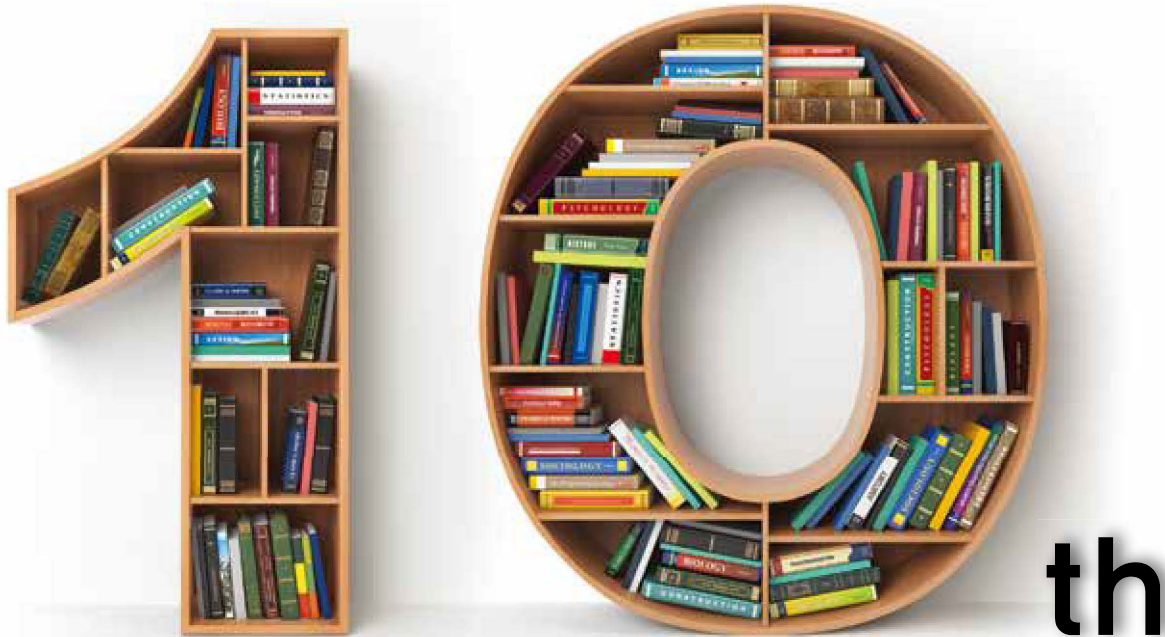
발길이 머무는  
공간을 구성하다

국내에 유일한 ‘큐레이터학과’를 나온 그녀는 2016년 연말 화성시문화재단에 입사한 이후 계속 동탄아트스페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타 문화재단에서는 문화교육을 담당하다 다시 전공분야로 돌아왔다. 첫해는 촉박한 시간과 일정으로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올해는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누구나 지나며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최대 장점인 만큼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이 관객들이 많은 만큼 작품들을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이 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다. 올 여름방학을 맞아 열리는 ‘양정욱 展’은 작년부터 협의 끝에 선보이게 된 동탄아트스페이스만을 위한 재미있는 작품이다. 아직은 비어있는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가득 차게 될지 기대된다.



2 0 0 8 - 2 0 1 8

# 화성시문화재단의 숨겨진 역사를 찾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10년 역사를 담은 백서를 편찬합니다.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낸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겠습니다.

재단 임직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보다 진실하고  
알찬 백서를 편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화성시문화재단의 역사를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자료가 백서에 수록될 경우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 보내주신 자료는 활용 후 훼손됨이 없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 1. 자료수집 대상 (2008년~2018년)

### 1) 사진 및 영상자료, 기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

→ 사진(재단과 관련한 인화지 및 데이터 파일),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기념품, 캘린더, 상장 및 상패 등

### 2) 재단 내 시설 및 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서류

→ 초기 자료(업무수첩, 다이어리 기록 등 포함), 업무일지,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각종 회의 자료, 교육 자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  
행사 자료, 신문기사 스크랩 등

## 2. 자료수집 기간

2018년 7월 9일 (월) ~ 8월 7일 (화)

## 3. 자료수집 문의 및 제출

기획홍보팀 신혜진 대리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화성시문화재단 3층

Tel: 031-8015-8112 / E-Mail: hcf10@hcf.or.kr